

## 2. 證市安定基金의 解體가 證市에 미치는 影響

- (證市安定基金의 解體 動機) 오는 5월초로 기금 結成일이 완료됨과 동시에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설에 따른 증시개입 불능, OECD 가입에 따른 규제완화 등에 따라 해체가 불가피해짐
- (證市安定基金의 實體 및 解體 時期) 대외개방에 따른 압력을 생각할 때 6조 6천억 원 외형의 증안기금의 해체시기는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전 또는 OECD 가입 협상 과정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가장 큼
- (證市安定基金의 解體 方法) 정부는 기금을 출연한 금융기관과 상장사들에게 수익증권 형태로 교부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환매를 금지시킴으로써 증시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음
- (株式市場에 미치는 影響) 수익증권 방식을 취해 당장 주식시장에 매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이도 중장기적으로 공급물량 증가 효과가 발생하여 주가상승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證市安定基金의 解體가 證市에 미치는 影響

규제완화에 따른 인위적 개입 수단의 해체 필요

- (證市安定基金의 解體 動機) 오는 5월초로 기금 結成일이 완료됨과 동시에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설, 그리고 OECD 가입에 따른 규제완화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 수단인 증시 안정기금의 해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 정부는 오는 5월초로 기금 結成일이 완료되는 증안기금을 원칙적으로 해체하기로 했음
  - 선물투자에서는 주가 등락에 상관없이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보는 측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정부가 증안기금 동원과 같은 인위적인 시장 부양책을 쓰면 주가지수 선물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또한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시장의 개방과 함께 규제완화가 진행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증안기금의 처리는 '연장' 보다는 '해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증시안정기금의 해체는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前 또는 OECD 가입 협상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기금을 출연한 금융기관과 상장사들에게 수익증권 형태로 교부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환매를 금지시킴으로써 증시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 증가로 이어져 주가 상승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證市安定基金의 規模 및 解體 時期) 보유 주식 4조 1천억 원, 채권과 현금 1조 7천억 원 등 모두 6조 6천억 원의 외형을 가진 증안기금의 해체시기는 본질적으로 시장상황에 달린 문제임. 그러나 대외개방에 따른 압력을 생각할 때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前 또는 OECD 가입 협상 과정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가장 큼

- 증시안정기금의 해체시기는 전적으로 시장상황에 달린 문제지만 5월초로 다가온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과 OECD 가입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 해체가 불가피함

○ (證市安定基金의 解體 方法) 정부는 증시안정기금 해체 방법으로 기금을 출연한 금융기관과 상장사들에게 수익증권 형태로 교부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환매를 금지시킴으로써 증시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음

- 증시안정기금의 해체 방법과 관련해서는 現金償還, 現物分配, 第4 投信 設立, 投信社 收益證券으로의 轉換, 投資者 保護 基金으로의 轉換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었음

○ (株式市場에 미치는 影響) 수익증권 방식을 취해 당장 주식시장에 매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여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물량 증가로 이어져 주가 상승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주가 급락시 “證市 援兵”으로 출전했던 증시안정기금을 대신해 과연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됨

·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에게 “누구도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을수 없다”는 고립감을 심화시켜 주식 수요 기반을 침체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천 일 영)